

# ‘혁신’ 민주,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올드보이’ 귀환 우려

“한쪽에서 혁신 말하는데...균형 맞지 않아”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려 하니 걱정”  
“당 지지도에 미칠 영향 신중히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올드보이’들이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의 복귀가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4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6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4선) 등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출마지로는 전 지역구인 목포가 거론되고, 고향인 해남·완도·진도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천 전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출마를, 정 전 장관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이외에도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원(6선), 이석현 전 의원(6선)이 각각 대전 서구갑,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에 도전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선)의 출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천천히 여쭙봐 달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복귀 소식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한다.  
지도부 소속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본인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게 꼭 선거일 리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긋

기도했다.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 등으로 지지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옛 의원의 귀환 소식은 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얼마 전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직 의원들이 국회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혁신위에서는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제한’ 등의 기득권 혁파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호남권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전직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며 “한쪽에서는 혁신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 올드보이들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당 지지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새로운 물결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간 물들이 자꾸 물레방아를 돌리려 하니 걱정”



이라고 전했다.  
올드보이들의 복귀는 이들이 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권 등 지역 민심에 달렸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다른 의원은 “출마는 자유고 막을 수는 없다”며 “당 총선 전략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복귀 시도를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남의 결집도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지지자를 다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 이재명, 이낙연 귀국에 “백지장도 맞들어야”...안부 통화도

이재명 “모두가 힘 합쳐야”...이낙연 “못다한 책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한 데 대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난 24일 이 전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안부인사 정도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만큼 내년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잠행하면서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영향력 확대, 비명계 구심점 역할 등은 당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무명용사들께서 남겨준 빼아픈 교훈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국방력과 국익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전했다.

##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총 21건의 안건 상정되어 처리

해남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제2차 본회의에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외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23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총 3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6건의 수법사례를 선정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방안 개선과 국외연수 우수사례를 집행부와 공유·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공모사업 보고 소홀, 공공자금 소극적 운용으로 이자수익률 저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 및 기금심의위원회 재구성 필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행안부 개선권고 사항 미제출,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소홀 등 17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 연계 시책·사업에 예산 반영하여 행정수행 철저, 군청 뒤 사거리 교통안전 대책, 공영유류주차장 시설 운영 방안, 미추진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조성 승인 부지 이행 철저,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장·출입로 대책,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해남읍 5일시장 해수처리 방안 등 16건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